

제 1 장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 ▶ 왜 국가경쟁력인가
- ▶ 1999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핵심
- ▶ IMD의 평가방법과 분석기틀
- ▶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 ▶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 ▶ 작은 나라의 앞서가는 경쟁력
- ▶ 좋은 제도와 효과 있는 정책이 경쟁력을 만든다

왜 국가경쟁력인가

○ 「IMD세계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은 한 나라의 기업경영환경에 국제비교 순위를 매기며 이들 나라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한다.

- 선진국 OECD 회원국 28개국과 신흥공업국 19개국 총 4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 288개의 분석지표를 제공하며 이를 8개 부문 경쟁력 결정요소로 나누어 분석한다.
 - 이들 중 2/3은 국제기구, 지역기관, 국별 통계기관에서 수집한 통계이며
 - 나머지 1/3은 서베이에 응답한 세계 4160명의 최고경영자 오피니언이다.
- 당해 년도 뿐 아니라 지난5년간의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경쟁력 추세를 고려한다.
- 세계 33개 자매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현실성을 높인다.

○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 of Nations)연구는 한 나라가 부가가치를 창출(Value Added Creation)하는데 기업경쟁력(Competitiveness of Companies)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지(Sustainability)를 다음의 8가지 경쟁력 결정요소로 나누어 분석한다.

○ 한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은 기업들의 경쟁여건을 조성함에 있어 다음의 네 가지 경쟁력 신장요소(Four Factors of Competitiveness)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 ①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공격적인 해외시장 공략(독일, 일본, 한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기업의 국내활동을 유인하고 매력적인 기업경영 여건을 제공(아일랜드, 태국, 영국) 할 것인가.

경영자원(Competitive Assets)	경영여건(Competitive Processes)
기업경영효율(Management) 국내경제활력(Domestic Economy)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인적자원(People)	정부행정서비스(Government) 국제화수준(Internationalization)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금융환경(Finance)

- ② 제품생산자와 용역제공업자를 최종소비자 만족(공예품, 행정 및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전세계 부가가치 창출 유통망 구축(통신, 컴퓨터, 자동차)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 ③ 한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개발(브라질)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활용 프로세스 창조(일본)에 집중할 것인가.
- ④ 한나라의 경제제도를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방안(영미방식)으로 가져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응집력 강화 방안(유럽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 이러한 분석과 선택이 기업경영환경을 결정하며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1999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핵심

-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은 대부분의 나라와 기업에게 과거 10년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변화가 너무 심하고 불안감이 더욱 높아가기 때문이다.
 - 아시아 경제위기는 국가나 기업의 빚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허술한 부채관리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들어냈다. 기업부채든 정부부채든 적절한 회계처리와 감사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편법의 횡행은 곧바로 국가신용도 추락과 자금이탈을 가져왔다. 기업공시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부채보증이 이루어져 나라전체를 외환위기로 몰고 갔다.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기술과 자본을 대주던 세계최대의 채권국인 일본이 아시아금융위기와 함께 한때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되었음은 그 타격이 매우 컸음을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 아시아경제위기는 그 충격의 여파가 급속히 전세계로 번져나갔다. 1998년 3월 원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 당 25달러에서 12달러로 떨어졌다. 아시아 수요격감이 원자재가 폭락을 가져왔고 이것은 다시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다.
 - 그러나 1999년 11월 현재까지 미국은 104개월 째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1999년 크리스마스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경험했던 첫 번째 호황, 1961년 2월부터 1969년 12월까지 장장 106개월간 지속되었던 성장행진기록이 새롭게 갱신되는 번영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경제(the New Economy)가 20세기의 마지막 축복인 또 다른 이유는 인플레이 위험이 없는 지속성장의 구가라는 점이다.

- 지난 5년간 IMD 평가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추이는 경쟁력이 있는 경제와 경쟁력이 무너진 경제는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 미국(세계 1위)은 컴퓨터, 생명과학, 원격통신의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 창출하여 리더 자리를 굳혔다.
 - 핀란드(세계 3위)는 금융 구조조정을 비롯한 철저한 경제개혁으로 지난 5년간 18위에서 무려 15등급을 뛰어 올라 성공했다.
 - 독일(세계 9위)은 통일을 계기로 동서독 통합과 새로운 통신설비 정보화 투자에 성공했으나 일본(세계 16위)의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 서로 다른 국가 경영방식을 가진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세계2위)과 홍콩(중국특별관리구, 7위)은 아시아 위기의 충격도 서로 달랐다.
 -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대만(18위)과 중국(29위), 그리고 우수한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경영인 많은 인도(39위), 그러나 정치불안으로 이어져 모라토리엄까지 간 인도네시아(46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 말레이시아(27위), 한국(38위)은 같은 아시아권이면서도 크게 대조를 이루었다.

- 한국경제의 IMD 평가 세계경쟁력이 지난 1995년 26위에서 1996년에는 27위로,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1997년에는 30위에 이어 기업들이 가장 심한 고통을 겪은 1998년에는 35위, 그리고 올해에는 38위로 계속 12등급이나 경쟁력이 추락했다.

-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비해 변화와 개혁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 역시 더 빨리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나아지고 있지 못하다.

지난 5년간의 IMD평가 국가경쟁력 순위변화 추이

(1999년 4월 1일 기준)

국 가 경 쟁 력 순 위					
국 가 명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미국	1	1	1	1	1
싱가폴	2	2	2	2	2
핀란드	3	5	4	15	18
룩셈부르크	4	9	12	8	-
네덜란드	5	4	6	7	8
스위스	6	7	7	9	5
홍콩	7	3	3	3	3
덴마크	8	8	8	5	7
독일	9	14	14	10	6
캐나다	10	10	10	12	13
아일랜드	11	11	15	22	22
호주	12	15	18	21	16
노르웨이	13	6	5	6	10
스웨덴	14	17	16	14	12
영국	15	12	11	19	15
일본	16	18	9	4	4
아이슬란드	17	19	21	25	25
대만	18	16	23	18	14
오스트리아	19	22	20	16	11
뉴질랜드	20	13	13	11	9
프랑스	21	21	19	20	19
벨기에	22	23	22	17	21
스페인	23	27	25	29	28
이스라엘	24	25	26	24	24
칠레	25	26	24	13	20
헝가리	26	28	36	39	41
말레이시아	27	20	17	23	23
포르투갈	28	29	32	36	32
중국	29	24	27	26	31
이탈리아	30	30	34	28	29
그리스	31	36	37	40	40
필리핀	32	32	31	31	36
아르헨티나	33	31	28	32	30
태국	34	39	29	30	27
브라질	35	37	33	37	38
멕시코	36	34	40	42	42
터키	37	33	38	35	35
한국	38	35	30	27	26
인도	39	41	41	38	37
슬로베니아	40	-	-	-	-
체코공화국	41	38	35	34	39
남아공화국	42	42	44	44	43
콜롬비아	43	44	42	33	33
폴란드	44	45	43	43	45
베네주엘라	45	43	45	45	44
인도네시아	46	40	39	41	34
러시아	47	46	46	46	46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1999년 세계경쟁력 연감」 (1999. 4. 21)

IMD의 평가방법과 분석기틀

- **IMD 평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8개 부문 모두 경쟁력 순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과도한 부채를 가진 기업들은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으며, 회사는 문닫고 살아남으려는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회오리에 휘말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봉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판매가 부진하고 투자계획이 취소되니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자유화조치로 시장개방은 확대되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도 신장되었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쉬워졌다.
 - 지난 5년간 악화된 부문 : 국내경제활력(7위→43위), 정부행정(18위→37위), 인적자원(21위→31위), 과학기술(24위→28위), 기업경영(27위→42위), 금융환경(37위→41위)
 - 지난 5년간 개선된 부문 : 경제기반시설(35위→30위), 국제화수준(40위→40위)
- **이처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우리의 체감 경쟁력과 부합되는 이유는 정부나 국제기구가 집계하는 통계뿐 아니라 경영일선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국내기업인, 외국인주재기업인들로부터 서베이(Executive Opinion Survey)를 직접 시행해 얻은 주관적 평가자료도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 IMD 세계경쟁력 평가는 47개국으로부터 수집된 288개의 기초통계지표를 활용한다.
 - 이중 140개 지표는 IMD의 자매연구기관인 33개 파트너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검증을 받고 최근 정보 반영하도록 수정된다. 이 통계지표는 hard data라고 한다.
 - 경쟁력과 뚜렷한 방향성이 입증되지 않은 42개 지표는 참고자료로 수치만 제시되며 지표계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매년 1월초부터 3월10일까지 최고경영자와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계량화가 어려운 106개 경쟁력 관련 항목에 대해 1-6의 스케일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한다. 응답 기업 경영인은 각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나라의 기업 경영환경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1999년에는 4160명의 응답 서베이가 통계분석에 유효샘플로 사용되었다. 국별 평균값이 그 나라의 대표 서베이값으로 활용되었다.
 - 140개의 통계지표와 106개의 서베이 지표 총 246개 지표를 8개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종합 경쟁력 지표 계산에 사용한다.
 - 국내경제활력(30개 지표), 국제화수준(45개), 정부행정(48개), 금융환경(27개), 경제기반 시설(32개), 기업경영(36개), 과학기술(26개), 인적자원(44개).
 - 이들을 다시 <경쟁력표 8>에 나온 것처럼 8개 부문에 46개 분야로 세분하여 경쟁력투입요소를 구성한다. 매년 경쟁력 개념 변화와 통계자료 가용성에 따라 46개 분야는 유연성 있게 달라질 수 있다.
- **경쟁력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250개의 기초투입지표를 이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각 지표의 평균과 분산이 0과 1이 되도록 표준화한다.** 이때 인플레이션율이나 실업률, 부채총액처럼 숫자가 많을수록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부호를 바꾸어 순서를 바꾼다.
 - 46개 분야별 경쟁력투입지표를 계산하고 순위표를 만든다.
 - 8개 부문별로 투입지표 순위표를 평균하여 지표를 만들고 이를 100분위로 점수화 한다.
 - 전체경쟁력지표는 8개 부문 경쟁력 지표를 통합하여 만든다.
-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전체세계경쟁력 지표와 순위, 8개 부문별 지표와 순위, 46개 분야별 지표와 순위를 사용하여 다음의 요약표를 만들어 경쟁력 분석에 활용한다.**
 - 세계경쟁력 점수표, 8개 부문 경쟁력 투입요소 순위표, 288개 경쟁력 기초투입 지표 순위표.
 - 47개국별 경쟁력 구조 변화 추이표, 8개 부문 46개 분야 국가경쟁력 내역 분석표.
 - 47개국별 경쟁력 개선 시뮬레이션, 국가경쟁력 5년간 변화추이, 국가경쟁력 장단점 비교표.

1999년도 IMD 평가 국가경쟁력 8개 부문별 순위

(1999년 4월 1일 기준)

국가명	종합 순위	국내 경제	국제화	정부 행정	금융 환경	사회간접 자본	기업 경영	과학 기술	인적 자원
미국	1	1	1	15	1	1	1	1	6
싱가폴	2	18	2	1	9	13	4	12	4
핀란드	3	4	11	10	8	2	3	6	1
룩셈부르크	4	3	3	7	2	15	12	20	10
네덜란드	5	7	6	18	3	7	2	8	12
스위스	6	8	26	4	4	10	15	3	9
홍콩	7	36	5	2	7	19	5	22	14
덴마크	8	10	12	22	5	9	11	9	2
독일	9	11	7	31	6	6	18	4	20
캐나다	10	12	24	12	11	8	8	13	7
아일랜드	11	2	8	5	16	23	7	11	21
호주	12	16	28	8	10	4	16	16	11
노르웨이	13	9	25	20	19	3	19	17	5
스웨덴	14	27	15	39	13	5	6	5	17
영국	15	26	4	19	12	17	20	14	24
일본	16	29	21	23	25	20	26	2	13
아이슬란드	17	5	37	14	26	12	21	19	3
대만	18	20	27	11	23	21	9	10	15
오스트리아	19	14	22	24	20	11	22	21	8
뉴질랜드	20	31	33	9	18	14	10	24	16
프랑스	21	13	9	40	17	16	24	7	23
벨기에	22	15	10	43	15	18	17	18	18
스페인	23	24	14	13	14	22	23	26	22
이스라엘	24	22	23	29	24	25	14	15	19
칠레	25	19	16	6	22	31	13	35	32
헝가리	26	17	17	26	28	26	30	27	26
말레이시아	27	41	29	3	30	24	25	32	36
포르투갈	28	21	19	25	21	27	34	38	25
중국	29	6	18	16	36	42	36	25	27
이탈리아	30	23	13	45	27	28	27	29	29
그리스	31	25	32	36	31	35	31	31	30
필리핀	32	39	20	21	35	45	28	33	45
아르헨티나	33	33	38	30	33	33	39	39	35
태국	34	40	34	17	40	43	41	46	33
브라질	35	32	36	27	39	39	33	40	41
멕시코	36	30	43	28	43	37	32	45	37
터키	37	42	31	41	29	40	29	37	42
한국	38	43	40	37	41	30	42	28	31
인도	39	28	44	33	34	46	40	30	44
슬로베니아	40	34	46	47	44	29	38	36	28
체코공화국	41	44	35	42	42	32	45	41	34
남아공화국	42	35	42	32	32	34	35	44	47
콜롬비아	43	38	47	38	38	41	37	34	43
폴란드	44	37	45	44	37	38	44	43	38
베네주엘라	45	46	41	35	45	36	43	42	40
인도네시아	46	45	39	34	46	44	46	47	46
러시아	47	47	30	46	47	47	47	23	39

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1999년도 세계경쟁력 연감, 1999. 4. 21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 UN이 인정한 주권국가가 지구상에 266개 있으며 185개 나라가 UN회원국이다. 이 가운데 인구100만 이상의 나라는 147개이다. IMD의 국가 경쟁력평가 대상 국가는 OECD회원국 26개 나라와 신흥공업국, 체제 전환국, 개도국 등 세계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19개 나라 모두 47개국이다.
 - 1998년도 「ALMANAG」에 따르면 세계 58.7억 명의 인구는 34.6조 달러의 구매력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액 GDP(PPP)를 산출하고 이 가운데 4.3조 달러를 수출하고 4.4조 달러를 수입하여 후진국들은 약 2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 IMD국가 경쟁력평가 대상 47개국은 총인구 41.94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71.47%이다. 이들 나라의 GDP(PPP)합계는 33.52조 달러로 세계 총 생산액의 96.8%이다. 전 세계의 평균 일인당 GDP(PPP)산출액이 5900 달러이므로 이들 47개 나라의 국민들은 평균소득이 7992달러로 세계평균보다 35.4%높다.
 - 세계평균에 비해 미국의 일인당 GDP(PPP)소득은 3.44배이고 한국의 소득은 1.41배 그리고 북한의 소득은 920달러로 세계평균의 11.5%밖에 되지 않는다. 1999년도 CIA가 조사해서 발간하는 「World Factbook」에 의한 구매력평가기준 일인당 GDP도 미국이 3만 1500달러, 한국은 1만2600달러, 북한은 1000달러로 추계되어 그 비율은 비슷하다.

- 세계 어느 나라도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세계와 담을 쌓고 산다고 해서 국제경쟁이나 국제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의 2138만 명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계획경제에서 살고 있다. 북한은 모든 것을 정부의 계획이 의존하고 시장은 아예 없는 중공업군수산업 위주 국가 소유 생산체제이다.
 - 산업시설은 노후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심각한 에너지 부족상태에 있다. 기근과 질병이 영양실조로 확대되고 있으며 면역 능력상실로 사망이 증가하고 국가는 무능하여 국제기구의 구제지원만을 의존하는 상황이다.
 - 북한경제는 이미 세계에서 경쟁력 평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북한 안에서는 상황을 왜곡하는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경쟁력보다는 생존능력이 더 큰 문제인 나라이다.
 - 북한의 수출 7.4억 달러는 일본이 28%, 한국이21%, 중국5%, 독일4%, 러시아1%(1995년)가 대상이며 광산물, 농수산물, 무기제조품이 수출품이다. 북한의 수입 18.3억 달러는 주로 중국33%, 일본17%, 러시아5%, 한국4%, 독일3%로부터 이루어지며 석유, 곡물, 석탄, 기계설비 소비재가 주 수입품이다. 2-3억 달러정도 (1997년)의 인도적 차원의 구호 물자 자원이 미국, 한국, 일본, EU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 강한 경쟁력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을 넓혀 경쟁을 촉진하는데서 생겨난다. 수요자든 공급자든 최상의 기회를 시장으로부터 얻도록 경쟁을 촉진하면 경쟁의 이익을 누릴 기회가 많아진다. 경쟁촉진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에 의해 시장의 가격결정이 유연해지도록 하면 된다.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다양한 기술을 가진 강한 선진경제이다. 민간부문의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중심 경제체제이다. 미국기업이 강해진 것은 미국의 시장이 강한 기업은 경쟁의 승자로, 그리고 약한 기업은 퇴출이나 인수합병,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쟁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쟁력 연감」, 1999. 4. 21

경쟁력표 3

미국, 한국, 북한: 국가경쟁력의 천당과 지옥

(1998년 통계중심, 1999년 11월 현재상황)

자료출처: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1999.11

	미국(US)	한국(KS)	북한(KN)
IMD 세계경쟁력 WEF 글로벌경쟁력 유러머니 국가 리스크 헤리티지 경제자유도 TI 부패제감도 NCA 국가정보화수준	1위/47개국(1999) 2위/59(1999) 3위/180(1999) 6위/161(1998) 18위/99(1999) 1위/50(1999)	38위/47개국(1999) 22위/59(1999) 40위/180(1999) 28위/161(1998) 52위/99(1999) 23위/50(1997)	평가대상못됨 평가대상못됨 180위/180(1999) 160위/161(1998)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토면적(상대비교), 땅 면적(경작:초지:수림:기타), 자연재해 환경재해	962만평방km(중국보다 크고 러시아의1/2) 915만 평방km(19%:25:50:26) 태평양연안 지진, 해일, 멕시코만 허리케인 화석연료 산성비, 제조제 수질오염, 사막화	9.8만 평방km(미국 인디애나주크기) 9.8만 평방km(18%:3:63:13) 강한 바람과 홍수를 일으키는 불규칙한 태풍 대도시 공기오염, 생활하수, 산업폐수	12.0만 평방km(미국 미시시피크기) 12.0만 평방km(14%:2:61:23) 늦은 봄 가뭄에 이은 홍수, 이른 가을 태풍 산업지역 공기오염, 수질오염, 옹수부족
인구(연령구성1-14:15-64:65이상), 인구증가율(천명 당 출산율, 사망율) 출생당시 예상수명(여자,남자) 종교구성비	2억7263만명(22%:66:12) 0.85%(14.3명,8.3명) 76.23세(72.95세,79.67세) 개신교56%,가톨릭28%,유태2%,무신10%	4688만명(22%:71:7) 1.0%(15.95명,5.68명) 74.3세(70.75세,78.32세) 기독교48%, 불교47%, 유교3%, 기타1%	2138만명(26%:68:6) 1.45%(21.37명,6.92명) 70.07세(67.41세,72.86세) 비자발적 불교, 유교, 기독교, 천도교 활동
국가체제 법률체계	연방 공화국, 강한 민주주의 전통 영국식 관습법, 사법권이 입법해석	공화국(남북한분단체제) 유럽 대륙법, 영미법, 유교 전통의 혼합	공산주의국가, 1인 독재체제, 독일 민법체계를 공산주의 법 이론으로 수정
경제상황 시장체제 기업 산업 경쟁력 경제현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다양한 기술선진경제 민간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중심경제 컴퓨터,의료장비,항공우주,군사장비분야 의료비부담, 무역적자, 소득빈곤층 확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OECD하위국으로 급성장, 예산활동,수입규제,산업특화등 정부개입 시장체제 1997년 금융위기에후 IMF관리체제 구조조정 경기회복에 상응하는 대기업 경쟁력 구조개편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계획경제 중공업 군수산업위주 국가소유 생산체제 심각한 에너지부족, 산업시설 노후, 비료 부족 기근과 질병 확대, 사망증가, 국제기구구제지원
GDP총액PPP(성장율, 일인당소득) 산업별 GDP구성비 인플레이션율, 실업율 노동력및직종(관리:사무:서비스:생산:농림)	8조5110달러(3.9%,3만1500달러) 농림2%,제조23%,서비스75% 소비자물가1.6%,실업율4.5% 1억3770만명(30%:29:14:25:3)	5847억달러(-6.8%,1만2600달러) 농림6%,제조43%,서비스51% 소비자물가7.5%,실업율7.9% 2000만명(서비스52%,광공업27%농림업25%)	218억달러(-5%,1000달러) 농림25%,제조60%,서비스15% 해당 없음, 해당 없음 916만명(농업36%,비농업64%)
수출액(수출상대국비중) 수입액(수입상대국비중) 대외 부채액. 경제지원원조액 전력생산량(화력:수력:원자력:기타)	6630달러(캐나다22%,서유럽21,일본10) 9120억달러(캐나다19%,서유럽18,일본14) 8620억달러, ODA74억달러 3조6290억kWh(65%:10:18:7)	1300억달러(미국17%:EU13:일본12) 940억달러(미국22%:일본21:EU13) 1540억달러, 자료없음 1941억kWh(62%:3:37:0)	7.4억달러(일본28%,한국21,중국5) 18.3억달러(중국23%,일본17,러시아5) 120억달러,2-3억달러 구호원조 받음 340억kWh(36%:65:0:0)
전화대수(전화체제) TV대수(TV방송국수) 철도길이(운영체계) 도로길이(포장도로 길이, 고속도로길이)	1억8250만대(광섬유 케이블, 위성지국) 2억1500만대(1500+9000CATV) 24만Km(민간소유,1.435m표준 궤선) 642만Km(390만Km,8.8만)	1660만대(광섬유 해저 케이블, 위성 지국국) 930만대(121개소+850중개소) 6240Km(국가운영,1.435표준 궤선) 6.3만 Km(4.6만Km,1720Km)	140만대(광섬유케이블 시작, 모스크바 베이징) 200만대(38개소) 5000Km(3500Km만 전기제어식,1.435표준궤선) 3.1만 Km(0.199Km,없음)
공항공수(포장할주로,3km이상할주로) 군사동원 가능인력 군사비(GDP비중)	14,459개소(5167개,180개) 15세 이상49세미만 남자대상 2,672억달러(3.4%)	103개소(68개소,1개) 15세 이상 49세미만 남자889만명 99억달러(3.2%)	49개소(22개소,2개) 15세 이상, 49개 미만대상 348만명 50-70억달러(25-33%)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 20세기는 산업자본주의가 꽃피운 시대였다. 산업사회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투입과 산출에 대비한 이윤을 극대화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관련된 산업을 수직으로 계열화해서 관련 다각화로 범위의 경제를 실현했다. 나라는 달라도 산업전략은 같았다.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었다.
 - 노동을 세분화해서 표준화된 작업으로 분업효율을 높이고 자본동원을 극대화해서 투자한다. 최저 평균생산비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시장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이다. 과학적인 경영관리체제를 도입해 원가회계와 시간관리 프로세스 효율만으로도 원가절감을 이룬다. 저렴한 단가와 대규모 생산 능력으로 철저하게 시장을 공략해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자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시스템이다.
 - 영국, 독일, 일본 모두 산업시대에 성공한 산업강대국 챔피언들이다. 영국은 한때 세계의 1/4을 지배했던 식민제국의 종주국이었고 세계 생산원료시장의 관리자였다. 독일은 패전 후 소련을 견제하는 유럽부흥정책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전후 복구를 이루고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만든 세계 3위의 경제강대국이다. 일본은 생산조립, 부품조달, 유통을 계열화 된 생산자 경제체제로 묶어 국내시장을 독점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만성 무역 흑자 국이며 세계 2위의 산업강대국이다.
- 산업사회에서 성공한 산업강대국 영국, 독일, 일본이 지식정보사회시대에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떤 변신을 스스로 추구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 영국은 지난 20년간 민영화를 단행해 고전적 자본주의 체제의 부활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대처수상은 강성노조와의 대결에서 시장체제를 구축하는데 승리했으며 은행, 보험, 금융 등 서비스 부문으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노동력 2880만 명 중 서비스직종의 비중을 68%로 높였다.
 - 독일은 아직도 기계장비, 화학, 금속, 식료, 섬유중심 공업국이며 노동력 3820만 명 중 33.7%가 아직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비중이 높은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게 된 것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독일 통일은 독일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제공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원격통신 체계를 독일 전역에 갖추었으며 광섬유 케이블 네트워크에 연결된 국제전화 체계는 14개의 Intelsat, Eutelsat와 Inmarsat 각 1개소, Intersputnik 2개소, 해저케이블 7개소, HF라디오 전화통신소 2곳이 모두 국제전화 위성지국과 연계되어있다.
- 일본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개성 없는 국가운영체제 때문이다. 입헌군주제의 국가체제, 영미법 사상을 가미한 유럽형 민법체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저항 없이 채택된 서구형 민주정치체제, 이 모든 제도와 정책이 한꺼번에 따라 잡기 식의 산물이다.
 - 베끼기 식 국가운영방식이 산업사회를 넘어서 앞서가는 정보기반 사회로의 이전을 앞두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로 일본체제가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 1995년의 IMD 평가 일본 국가경쟁력 4위는 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1999년에는 16위로까지 급락했었다. 세계 최대의 무역 흑자국,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무색한 추락하는 경쟁력이다.

경쟁력지표 4

영국,독일,일본: 산업강대국의 국가경쟁력

(1998년 통계중심, 1999년 11월 현재상황)

자료출처: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1999.11

	영국(UK)	독일(GM)	일본(JA)
IMD 세계경쟁력 WEF 글로벌경쟁력 유러머니 국가 리스크 헤리티지 경제자유도 TI 부패체감도 NCA 국가정보화수준	15위/47개국(1999) 8위/59(1999) 10위/180(1999) 7위/161(1998) 13위/99(1999) 16위/50(1999)	9위/47개국(1999) 25위/59(1999) 5위/180(1999) 25위/161(1998) 14위/99(1999) 18위/50(1997)	16위/47개국(1999) 14위/59(1999) 11위/180(1999) 12위/161(1999) 25위/99(1999) 13위/50(1997)
국토면적(상대비교), 땅 면적(경작:초지:수림:기타), 자연재해 환경재해	24.5만 평방km(미국 오레건주 크기) 24.2만 평방km(25%:46:10:19) 특기 사항 없음, 북대서양기후 영향 온화 발전소 아황산가스 배출, 하수배출 해양오염	35.7만 평방km(미국 몬태나주 크기) 34.9만 평방km(33%:16:31:20) 홍수피해 석탄사용 발전설비와 자동차연료 공기오염	37.7만 평방km(미국 캘리포니아주 크기) 37.4만 평방km(11%:3:67:19) 화산지대, 잦은 지진발생 피해 발전소 배기가스에 의한 공기오염, 산성비
인구(연령구성 1-14:15-64:65이상) 인구증가율(천명당 출산율, 사망율) 출생당시 예상수명(여자, 남자) 종교구성비	5911만명(19%:65:16) 0.24%(11.9명,10.6명) 77.37세(74.73세,80.15세) 앵글리칸 2700만, 가톨릭900만	8208만명(15%:69:16) 0.01%(8.68명,10.76명) 77.17세(74.01세,80.5세) 개신교38%,가톨릭34,무종교26	1억2618만명(15%:68:17) 0.2%(10.48명.8.12명) 80.11세(77.02세,83.35세) 신도 및 불교84%,기타16%
국가체제 법률체계	입헌군주제 로마법과 현대 대륙법을 가미한 관습법	연방공화국 자연주의 사상 존중 민법체제	입헌군주제 영미법사상을 가미한 유럽형 민법체제
경제상황 시장체제 기업 산업 경쟁력 경제협안	세계에서 막강한 교역 및 금융 중심국 지난20년간 민영화단행, 자본주의 경제 은행보험 금융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높은 경제 유럽연합 회원국, 유로 통화 가입 연기상태	세계3위의 경제강대국 복지혜택을 강화한 자본주의 시장체제 기계장비,화학,금속,식품,석유중심공업국 유럽통화연합(EMU)출범과 동독재건	세계2위의 산업강대국 계열화된 생산자 경제체제 정부지원 산업협력, 근면, 기술습득 땅 부족, 인구노령화
GDP(PPP)총액(성장율, 일인당소득) 산업별 GDP구성비 인플레이션율, 실업율 노동력및직종(관리:사무:서비스:생산:농림)	1조2520억달러(2.6%,2만1200달러) 농업1.5%,광공업32,서비스67 소비자물가2.7%,실업율7.5% 2880만명(서비스68%,제조18,정부4)	1조8130억달러(2.7%,2만2100달러) 농업1.1%,광공업33.1,서비스65.8 소비자물가0.9%,실업율10.6% 3820만명(제조업33.7%,농업2.7,서비스64)	2조9030억달러(-2.6%,2만3100달러) 농업2%,광공업38,서비스60 소비자물가0.9%,실업율4.4% 6772만명(서비스50% 제조업33%)
수출액(수출상대국비중) 수입액(수입상대국비중) 대외부채액, 경제지원원조액 전력생산량(화력:수력:원자력:기타)	2710억달러(EU56%,US12) 3040억달러(EU53%,US13) 자료 없음, ODA 34억달러 3096억kWh(72%:1:26:0.1)	5100억달러(EU56%,미국18.6) 4260억달러(EU54%,미국7.7) 자료 없음, ODA 75억달러 5150억kWh(66%:4:30:0)	4400억달러(미국30%,EU18 동남아12) 3190억달러(미국24%,동남아14,EU14) 자료 없음, ODA 91억달러 9485억kWh(61%:8:30:0)
전화대수(전화체제) TV대수(TV방송국수) 철도길이(운영체제) 고속도로길이(포장도로길이,고속도로길이)	2950만대(고금현대화체제) 2000만대(78개소+869) 1.6만Km(복선 또는 다중선 1.435계선) 37.2만 Km(37.2만km,3270)	4400만대(신규투자 최첨단 설비) 5140만대(9513개소) 4.6만km(1994년 민영화) 65.6만km(65만 km,1.1만km)	6400만대(현대체제, 위성 지구국) 1억대(7549개소) 2.4만km(2.0만, 1.067m계선) 116만 km(86만km 0.6만 km)
공항수(포장활주로,3Km이상), 군사동원 가능인력. 군사비(GDP비중)	497개소(356개,10개소) 1205만명(15-49세 남자) 367억달러(2.6%)	618개소(319개,14개소) 2086만명(1779만명가능) 328억달러(1.5%)	170개소(140개소,5개소) 2643만명(3064만명 가능) 429억달러(0.9%)

작은 나라의 앞서가는 경쟁력

- 글로벌리제이션의 메가트렌드 속에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나라는 사회가 자유롭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은 작은 나라들이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이 나라의 크기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한나라의 기업이 향유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 룩셈블그는 1999년도 유러머니 평가 국가 리스크가 가장 낮아 신용도가 세계 제일인 나라이다. 이 나라의 번영된 경제체제는 전국민에게 회계교육을 실시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신용평가를 금융거래의 관행으로 정착시켰다. 철강산업에 의존하던 경제체제를 금융부문에 특화하였다. EU회원국이 되어 유럽시장 단일화에 힘입어 개방의 이익을 향유하게 됐다.
 - 핀란드는 생산성 높은 국민의 힘으로 고도화 산업사회로 구조조정에 성공한 나라이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겪으면서까지 금융구조개혁을 단행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독립성있고 경쟁력 있는 은행부문 재구축에 성공했다. 고도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목재, 금속, 공학, 통신, 전자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하여 국가경쟁력의 수직상승을 가져왔다.
 - 뉴질랜드는 규제가 가장 심하고 국가가 모든 일에 나서는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였으며 결국 농민보조금과 사회연금부담으로 국가파산 외환위기를 1983년 12월에 맞았던 나라이다. 새로 집권한 노동당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는 「로저노믹스」라고 불리는 시장주의 경제개혁을 단행했고 10여 년간의 지속적인 개혁으로 뉴질랜드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 글로벌 경쟁을 수용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농민이 세계시장에서 농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로 만들었다. 완전히 독립된 중앙은행, 철저한 정부개혁, 공공부문의 기업화와 민영화,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져온 근로계약법시행, 이 모든 것들이 뉴질랜드개혁을 상징하는 내용들이다. 한때 세계9위까지 올랐었던 IMD평가 국가경쟁력이 국민들이 개혁에 피곤함을 느끼고 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위까지 하락했다.
- 핀란드와 룩셈블그의 경쟁력 급상승과 뉴질랜드의 경쟁력 하락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쟁력 창출주체인 기업, 특히 열린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대기업의 존재 유무에 귀착된다. 제도개혁과 정책의 글로벌 스탠다드 만으로는 부족하다.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대기업이 있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
- 핀란드는 1995년 국가경쟁력 순위18위에서 1999년 3위로 무려 15등급을 뛰어 올랐다. <경쟁력표 14>에서 보듯이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기업 가운데 핀란드 기업이 같은 기간 중에 1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인구 515만 명의 작은 나라가 13.7만 명을 고용하는 4개의 세계 500대기업을 가지고 있다.
 - Nokia(283위, 이동전화단말기, 전화 LAN장비, 매출145억 달러, 이윤17억 달러, 자산117억 달러, 고용 4.4만 명)
 - Stora Enso (397위, 수목관리 및 종이펄프제조, 매출114억 달러, 이윤2.0억 달러, 자산180억 달러, 고용 4.0만 명)
 - Fortum(473위, 석유 정유, 매출92억 달러, 이윤2.3억 달러, 자산131억 달러, 고용1.8만 명)
 - UPM-Kymmene(483위, 수목관리 및 종이펄프 제조, 매출 91억 달러, 이윤11억 달러, 자산134억 달러, 고용 3.2만 명)
- 뉴질랜드에는 글로벌 경영을 하는 대기업이 없다. 국가는 효율적이어도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할 기업이 없다.

룩셈블그, 핀란드, 뉴질랜드: 작은나라의 앞서가는 경쟁력

(1998년 통계중심 1999년 11월 현재 상황)

	룩셈블그(LU)	핀란드(FI)	뉴질랜드(NZ)
IMD 세계경쟁력 WEF 글로벌경쟁력 유로머니 국가 리스크 헤리티지 경제 자유도 TI부패감도 NCA 국가정보화	4위/47개국(1999) 7위/59개국(1999) 1위/180개국(1999) 7위/161개국(1999) 11위/99개국(1999) 자료 없음	3위/47개국(1999) 11위/59개국(1999) 12위/180개국(1999) 22위/161개국(1999) 2위/99개국(1999) 2위/50개국(1997)	20위/47개국(1999) 13위/59개국(1999) 1위/180개국(1999) 4위/161개국(1999) 4위/99개국(1999) 3위/50개국(1997)
국토면적(상대비교) 땅면적(경작:초지:수림:기타) 자연재해 환경재해	0.26만평방km(미국 로도아일랜드주 크기) 0.26만평방km(24%:21:21:34) 특기사항 없음 도시지역의 대기 및 수질오염	33.7만평방km(미국 몬타나주 크기) 30.5만평방km(8%:0:76:16) 특기사항 없음 공장, 발전소 대기오염 산성비, 산업폐기물	26.8만평방km(미국 콜로라도주 크기) 26.8만평방km(9%:55:28:8) 작은 규모의 작은 지진, 활화산 산림훼손, 토질침식, 외부종자 유입
인구(연령구성 0-14:15-64:65이상) 인구증가율(천명당 출산율, 사망률) 출생당시 예상수명(남자, 여자) 종교구성비	42만명(18%:67:15) 0.88%(10.35명, 9.32명) 77.65세(74.58세, 80.83세) 가톨릭 97%, 개신교 유대교 3%	510만명(18%:67:15) 0.15%(10.77명, 9.67명) 77.32세(73.81세, 80.98세) 루터란89%, 그리스정교1%, 무신교 9%	366만명(23%:66:12) 0.99%(14.42명, 7.53명) 77.82세(74.55세, 81.27세) 앵글리칸24%, 개신교18%, 가톨릭15%
국가체제 법률체계	입헌군주제 민법체계, 국제사법재판 수용	공화국 스웨덴법에 기초한 민법체계	의회민주주의의 체제 영국법체계, 마오리족 국토관리법
경제상황 시장체제 기업 산업경쟁력 경제협안	안정적이고 번영된 경제 EU회원국으로 유럽시장의 개방이익 향유 철강산업의존 탈피, 금융부문 특화 10EU회원국과 1999년 1월 유로출범	생산성 높은 국민의 고도산업화사회 고도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목재, 금속, 공학, 통신, 전자 산업 성공적인 경제침체 극복, 구조조정 EMU	1984년 이후 경제구조개혁으로 경쟁력강화 글로벌경쟁을 수용하는 자유시장 경제 보조금 없는 농업, 광공업기술력 향상 아시아경제위기 영향 극복, 성장회복
GDP(PPP)총액(성장률, 일인당소득) 산업별, GDP구성비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노동력 및직종(관리:사무:서비스:생산:농림)	139억달러(2.9%, 3만 2700달러) 농업 1%, 광공업22%, 서비스 77% 소비자물가1.4%, 실업률 3% 22만명(외국인근로자1/3, 서비스직83%)	1036억달러(5.1%, 2만 100달러) 농업 5%, 광공업32%, 서비스 63% 소비자물가1.5%, 실업률 12% 253만명(공공서비스30%, 광공업20%)	611억달러(-0.2%, 1만 7000달러) 농업 9%, 광공업25%, 서비스 66% 소비자물가1.1%, 실업률 7.6% 186만명(서비스 65%, 제조업25%)
수출액(수출상대국 비중) 수입액(수입상대국 비중) 대외 부채액, 경제지원 원조액 전력생산(화력:수력:원자력:기타)	71억달러(독일28%, 프랑스18%) 94억달러(벨지움38%, 독일25%) 자료 없음, ODA 0.65억달러 53억kWh(90%:10%:0:0)	430억달러(독일11%, 영국10%, 스웨덴10%) 307억달러(독일15%, 스웨덴12%, 영국8%) 300억달러, ODA 3.8억달러 674억kWh(55%:17%:28:0)	129억달러(호주20%,일본15%,미국10%) 130억달러(호주27%,미국19%,일본12%) 532억달러, ODA 1.2억달러 355억kWh(19%:76%:0:5:6%)
전화대수(전화체계) TV대수(TV방송국수) 철도길이(운영체계) 도로길이(포장도로길이, 초고속도로)	27만대(완전자동화, 이동전화) 10만대(5개소) 275km(262km전기철도,1.435m 표준 궤선) 5137km(5086km, 123km)	250만대(최상서비스의 현대시스템) 192만대(120개소+431) 5859km(2073km 전철, 1524m 궤선) 7.7만km(4.9만km, 444km)	170만대(최신장비체계) 153만대(41개소+52) 3973km(519km전철, 1.067m궤선) 9.2만km(5.3만km, 144km)
공항수(포장활주로, 3km이상 활주로) 군사동원 가능인력 군사비(GDP비중)	2개소(1개소, 1개소) 8.8만명(10.8만명 대상) 1.24억달러(0.8%)	157개소(68개소, 3개소) 105만명(127만명 대상) 18억달러(2%)	111개소(44개소, 2개소) 79만명(94만명 대상) 5.6억달러(1.05%)

자료출처: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1999」, 1999.11

시스템이 다르면 중국인도 다르다

- **문명과 문화의 차이, 국민과 민족의 차이,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까. 같은 중국민족인데 제도의 차이가 경쟁력 면에서 이처럼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싱가포르, 홍콩, 중국 모두 2차 세계 대전 후 생긴 나라이다.**
 - 싱가폴은 1965년 8월9일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으며 영연방체제 공화국이다.
 -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영연방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특별자치구로 인정되어 종전의 경제적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고 있다.
 - 중국은 B.C. 221년 진나라에 의해 통일되었지만 1912년 2월 12일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정치적 중앙통제와 경제적 지방분권체제를 추구하면서 1978년 이후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왔다.
- **홍콩 반환이후 중국이 겪는 변화와 홍콩이 겪는 정치적 변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클 것인지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글로벌리제이션 추세와 정보화 물결, 지식사회 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변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미국이 먼저 시작했을 뿐이고 변화는 시장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의 개인이 가진 경제자유정신이 스스로 주도해 가고있다는 사실이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 **중국은 공산당 중심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병행하고 있다.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WTO가입조건에 관한 13년간의 협상을 마치고 미국의 기업들이 넓은 시장의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과 중국이 134번째 WTO회원국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 WTO회원국이 되어 중국은 공산품을 세계시장에 자유롭게 쏟아내면서 중국의 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50%이상의 외국인 지분은 허용하지 않는 지배구조 문제와 외국은행의 중국기업상대 대출은 2년 후부터 가능하도록 하며 현재의 80-100% 자동차 관세를 2006년까지 2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부터 금융서비스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에 이르기까지 WTO룰에 따라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 국제무역과 외국인 투자에 경제를 개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이 약할 때에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면 새로운 사업기회 포착을 위한 번영의 기회이다. 똑같은 중국민족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와 홍콩이 보여준 대로 싱가포르의 경제적 자유보장을 위한 철저한 국가관리 통제와 홍콩처럼 원칙만 맞으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자유방임형 시장위임체제는 시장체제의 양극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정치권력 집중화와 경제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체제조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유기업의 효율화, 부패근절, 군사현대화는 중국의 당면 과제이다.

싱가폴, 홍콩, 중국: 시스템이 다르면 중국인도 다르다

(1998년 통계중심 1999년 11월 현재 상황)

	싱가폴(SN)	홍콩(HK)	중국(CH)
IMD 세계경쟁력	2위/47개국(1999)	7위/47개국(1999)	29위/47개국(1999)
WEF 글로벌 경쟁력	1위/59개국(1999)	3위/59개국(1999)	32위/59개국(1999)
유러머니 국가 리스크	17위/180개국(1999)	26위/180개국(1999)	50위/180개국(1999)
해리티지 경제자유도	2위/161개국(1999)	1위/161개국(1999)	124위/161개국(1999)
T1부패제감도	7위/99개국(1999)	15위/99개국(1999)	58위/99개국(1999)
NCA국가정보화	10위/50개국(1997)	14위/50개국(1997)	49위/50개국(1997)
국토면적(상대비교)	647평방km(미국 워싱턴DC의 3.5배)	1092평방km(미국 워싱턴DC 6배)	959.6만평방km(미국전체크기)
땅면적(경작:초지:수림:기타)	637평방km(2%:6:5:87)	1042평방km(6%:2:20:72)	932.6만평방km(10%:43:14:33)
자연재해	해당 없음	때때로 일어나는 태풍	잦은 태풍, 치명적 홍수, 지진, 가뭄
환경재해	산업폐기물 오염, 인도네시아산림 매연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대기·수질오염	온실효과 대기오염, 산성비, 홍수부족
인구(연령구성 0-14:15-64:65이상)	353만명(21%:72:7)	684만명(18%:71:11)	12억4687만명(26%:68:6)
인구증가율(천명당 출산율, 사망율)	1.15%(13.38명, 4.29명)	1.9%(12.9명, 5.96명)	0.77%(15.1명, 6.98명)
출생당시 예상수명(남자, 여자)	78.84세(75.79세, 82.14세)	78.91세(76.15세, 81.85세)	69.92세(68.57세, 71.48세)
종교구성비	불교(중국인)모슬렘	토속종교 90%, 기독교 10%	도교, 불교, 공식적으로는 무신교
국가체제	영연방체제 공화국	중국 특별관리 지역	공산주의 국가체제
법률체제	영국관습 법체계	영국관습법 체계	관습과 규율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체제
경제상황	최상의 국제교역 연계 서비스개방 경제	중국과 연계된 교역과 투자중심 국제상업도시국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시장체제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심 개방체제	활력 넘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정치권력 집중화와 경제 분권화체제
기업 산업 경쟁력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인프라투자	생활용 소비제품 중심, 국제교역	국제무역과 외국인투자에 경제개방
경쟁현안	인건비 상승, 싱가포르 달러가치 상승	경제자유보장·국제금융·교역	국유 기업 효율화, 부패근절, 군사현대화
GDP(PPP)총액(성장율, 일인당소득)	917억달러(1.3%, 2만 6300달러)	1681억달러(-5%, 2만 5100달러)	4조4200억달러(7.8%, 3600달러)
산업별, GDP구성비	농업 0%, 제조업28%, 서비스 72%	농업 0.1%,제조업15.9%, 서비스 84%	농업 19%, 공공업49%, 서비스 32%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소비자물가-0.5%, 실업률 5%	소비자물가2.9%, 실업률 5.5%	소비자물가-0.8%, 실업률 3%-10%
노동력 및 직종(관리:사무:서비스:생산:농림)	185만명(서비스34% 생산26%)	321만명(상업서비스32%, 사회서비스10%)	6억9600만명(농업50%, 제조업24%)
수출액(수출상대국 비중)	1280억달러(말레이시아19%, 미국18%)	1880억달러(중국35%, 미국22%)	1838억달러(홍콩21%, 미국21%)
수입액(수입상대국 비중)	1339억달러(일본21.6%,말레이시아15%)	2086억달러(중국38%, 일본14%)	1401억달러(일본20%, 미국12%)
대외부채액, 경제지원 원조액	해당 없음, 관련 없음	없음, 없음	1590억달러, 62억달러
전력생산(화력:수력:원자력:기타)	280억kWh(100%:0:0:0)	270억kWh(100%:0:0:0)	1조1600억kWh(93%:6:1:0)
전화대수(전화체제)	140만대(최신, 해저케이블, 위성 지구국)	447만대(최신 유선무선 연계시설)	1억500만대(통신 기간망, 위성연계)
TV대수(TV방송국수)	105만대(4개소)	175만대(4개소+2)	3억대(209개소+3000)
철도길이(운영체계)	38km(38km, 1.00m궤선)	34km(34km 전철, 1.435m 궤선)	6만4900km(12,000km전철,표준궤선)
도로길이(포장도로길이, 고속도로)	3017km(2936km, 148km)	1831km(1831km)	121만km(27만km, 2.4만km)
공항수(포장활주로, 3km이상활주로)	9개소(9개소, 2개소)	3개소(3개소, 2개소)	206개소(192개소, 18개소)
군사 동원가능 인력	75만명(104만명 대상)	145만명(192만명 대상)	1억 9839만명(3억6126만명대상)
군사비(GDP비중)	42.4억달러(5.1%)	군사방위는 중국의 책임임	126억달러(자료없음)

자료출처: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1999」, 1999.11